

〈研究發表會 論文拔萃〉

第1回 研究發表會：產學協同을 위한 經營學教育의 方向

產學協同을 위한 經營學教育의 方向(李漢彬)

企業이 타라는 大學의 經營學教育(鄭壽昌)

第2回 研究發表會：韓國的 經營學의 土着化 方向

韓國會計學의 課題(俞城在)

責任會計에 있어서의 모티베이션 問題小考(高德弼)

財產管理의 定着化 方向(朴廷寔)

生産管理의 土着化(金海天)

韓國的 마아케팅의 土着化問題(黃一淸)

經營學의 韓國化(李學鍾)

產學協同을 위한 經營教育의 方向

李 漢 彬*

工業化된 社會에서 會社라는 人間努力의 組織方式이 크게 擡頭됨에 따라 經營學이 應用社會科學의 重要한 分野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工業化 過程에 있고 經營學 教育의 重要性도 認識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서는 工業化 過程에서 일어나는 韓國産業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經營學教育의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韓國産業이 當面한 課題：이는 크게 外的 挑戰과 內的 挑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外的 挑戰은 産業의 外部에 나타난 問題를 말한다. 이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人口의 增加에 따라 企業機會가 增大되었으며, 둘째, 企業의 國際化에 따른 競爭의 深化, 셋째, 勤勞者, 消費者, 投資者의 質的 向上에 따라 合理化와 責任性이 要請된다는 것이다. 넷째 投資者, 消費者, 勤勞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 政府의 企業에 대한 統制가 強化된다는 것이다. 이를 綜合하면 企業은 社會的 能率의 확보와 利害關係者에 대한 責任性이 점점 重要하게 되었다.

內的인 挑戰은 産業自體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말하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市場의 開拓, 維持, 擴大, 둘째, 새로운 技術의 導入

* 崇田大學校 總長

과 革新, 셋째, 費用의 合理化, 넷째, 財務構造의 改善, 다섯째, 시스템과 組織開發의 必要性, 여섯째, 人的 構成의 改造, 일곱째, 創業, 生存, 繼承을 어떤 形態로 할 것인가 等이다. 이를 綜合하면 企業은 內的으로는 利潤性, 外的으로는 責任性의 問題라 볼 수 있다.

經營學教育의 課題: 產業이 바라는 經營學教育의 方向은 問題解決과 意思決定에 必要한 能力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內容을 보면 첫째, 問題에 關聯된 事實을 分析하는 能力으로 量的 把握能力和 質的 把握能力을 겸해야 한다. 둘째, 可能한 解決方案을 構成하고 展開해나가는 能力으로 여러 要因을 結合하여 創意性있는 方案을 提示, 展開할 수 있는 教育이어야 한다. 셋째 意思決定에 대한 先驗的 評價能力으로 評價基準이 妥當하고 決定에 대한 會社의 內的·外的 責任에 대해서 통찰하는 안목이 必要하다. 經營學教育의 類型은 記述解釋方法, 實證分析方法, 分析解決方法 等 세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韓國의 經營學教育은 지금까지 敎育過程과 方法이 너무 記述解釋方法에 集中하여 왔다.

產學協同을 위한 몇가지 方向提示: 첫째, 小規模 企業의 全體運轉에 대한 關心, 특히 모든 問題를 綜合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教育이 必要하다. 둘째, 企業體內的 新計劃에 大學生이 參與함으로써 산 教育을 해야 한다. 셋째, 學部의 敎科過程을 實證分析的 接近方法으로 轉換해야 한다. 넷째, 分析解決法에 關한 敎科過程과 이 方法의 위한 本格的인 經營大學院의 設立이 要請된다. 이러한 教育을 위해서 產業界의 實證教育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과 學界의 研究가 必要하다.

企業이 바라는 大學의 經營學教育

鄭 壽 昌*

우리나라는 三次에 걸친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을 通하여 經濟的으로 高度成長을 持續해 왔다.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原因으로는 첫째,

* 東洋麥酒株式會社 社長